

“새만금,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첫 출발” 첨단 교통서비스 본격 검토

- 첨단 교통서비스 연구용역 착수, 출퇴근 맞춤형 교통서비스 실증 추진
- DRT·자율주행 등과 연계한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
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, 이하 새만금청)은 5월 20일 새만금청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‘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·운영 방안 검토 연구용역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착수보고회는 새만금지역의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고,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입주 확대, 새만금 개발계획에 발맞춘 도시·산업·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.

□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△첨단 교통서비스 및 인프라 도입 여건 분석과 도입 방안 마련 △첨단 교통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및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△수요응답형 교통(DRT)* 도입 및 운영 방안 검토 등이다.

* DRT(Demand Responsive Transport)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

○ 특히, 수요응답형 교통(DRT) 실증운영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수요를 대상으로 추진되며,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실증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새만금형 첨단 교통서비스의 실효성 검증에 사용하며 향후,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.

□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의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**DRT 운영 권역 확대**,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등 **첨단 인프라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**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새만금 특성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,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반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□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, 기존 대중교통 보다 **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**”며, “**새만금만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**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**성공적인 수행**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개발사업국 로봇수소추진단	책임자	단 장	천용희	(063-733-1160)
		담당자	사무관	배은아	(063-733-1163)
			전문위원	김치영	(063-733-1168)